

# 고려말 조선전기의 왜구와 사천

李 在 範  
(경기대학교 교수)

1. 서 론
2. 고려말 조선전기의 왜구
3. 사천시의 역사와 왜구
4. 결 론

## 1. 서 론

왜구는 일본인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해양 침구집단이다.<sup>1)</sup> 왜구의 한반도 침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왜구라는 고유명사가 발견되기는 「광

1) 왜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장상선단이다. 일본학계의 대표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왜구가 처음 통상을 요구하였다가 관철되지 않으면 침구를 하였다고 한다. 처음부터 약탈이 목적인다고 하지 않는다(青山公亮, 『日麗交渉史の研究』, 明治大學文學部 文學研究所, 1950). 그리고 왜구를 해양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역사적 발전을 이룬 존재라고 한다(田中健夫, 『倭寇』, 教育社, 1982). 한편 한국에서는 왜구의 침략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견해가 구분된다. 최근 한국 학자의 왜구에 관한 견해는 『倭寇と日麗關係史』(李嶺, 東京大學出版部, 1999).

개토대왕릉비문」에서부터이다. 「광개토대왕릉비문」에는 왜구가 모두 네 차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유명사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학계에서는 왜구가 아니라 일본군의 침구라고 주장하지만, 고구려에서는 일본군이 되었건 왜인이 되었건 이와 같은 침구 행태의 집단들을 왜구라고 고유화하여 호칭하였다.<sup>2)</sup>

왜구는 시기에 따라 규모나 빈도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려말에 들어서 극성한다. 고려말에 왜구가 극성한 요인은 여럿 있겠지만, 대체로 일본의 국내 사정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 원인을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하여서 그에 대한 복수심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것은 어쨌든 고려말의 왜구는 대규모로 조직적인 침구를 감행했다. 따라서 고려에서 입은 피해는 엄청났다. 왜구는 적게는 수십인으로 표현되는 작은 규모의 침구도 있었지만, 많게는 진포전투의 왜구는 500척에 달했다.

이러한 왜구에 대하여 한국사 국정교과서에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 않다. 그 까닭은 왜구에 의한 침입이 사실상 고려를 멸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상이 처참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다지 기분 좋지 않은 과거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국사의 입장에서는 대왜구 상황, 즉 왜구토벌이라는 차원에서 연구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sup>3)</sup>

그러나 본고에서는 왜구의 침략에 대하여 사실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려고 한다. 왜구에 의하여 실제로 당했던 고려의 피해와 이에 대한 소극적인 고려의 대책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왜구의 실상을 파악한 뒤 사천 일대의 왜구는 어떻게 횡행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천은 해안에 연한 거점으로서 예로부터 주요한 해상 요충지로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왜구의 침구를 받기 쉬운 입지조건

2) 고대 왜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구려·신라와는 충돌했지만, 백제와는 아무런 마찰이 없었다(이재범, 「삼국시대의 왜구침탈과 방왜책」, 『STRATEGY 2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249-275).

3)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를 강조한 것은 북한에서 더욱 심하다. 조선전사에서는 고려의 피해보다 승전의 내용만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왜구가 해양침구집단이었던 만큼 사천도 왜구의 침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sup>4)</sup>

또한 본고에서는 왜구 침구 당시 사천의 군사방어적 인식 및 시설과 왜구 침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고려 및 조선의 토벌 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여기에는 조선초의 왜인들이 침략행위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사랑왜변에 대해서도 상술하여 왜인들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를 재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가 왜구의 후신이라고 할 일본에 대한 우리의 대처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를 재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본고를 작성하였다는 데 자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고려말 조선전기의 왜구

고려말 왜구의 원인은 일본 국내 정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1192년에 源賴朝가 征夷大將軍이 되어 鎌倉幕府를 건설하고 武家政治를 시작한 이후로 천황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던 중, 13세기에 이르러서는 源氏의 세력이 쇠퇴하여 외척인 北條泰時에게로 정권이 넘어갔다. 이 무렵에 대륙에서는 몽고제국이 흥기하여 주변 제국에 대한 정복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북조씨가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13세기 말, 몽고는 고려에 이어서 일본을 복속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당시 집정자인 北條時宗이 이를 거절하자, 고려와 연합하여 두 차례에 걸친 일본정벌을 단행했으나 실패하였다.

4) 사천은 지리적으로 진주, 하동, 고성 등과 연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사료에 나타나는 위의 지명들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발췌하여 다루었다. 본고는 2005년 한국중세사학회에서 주최한 『한국중세 사천 지역사회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원고임을 밝혀둔다.

일본은 여몽연합군의 침공에 맞서 싸우면서 몽고군의 집단전법과 화약을 사용하는 신무기인 鐵砲 공격을 받고 고전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불어 닥친 폭풍으로 말미암아 용이하게 침공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여몽연합군의 침공을 계기로 하여 일본의 北條政權은 전국을 장악하여 통치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몽고의 재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군비 지출의 과다는 재정의 궁핍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 유공자에 대한 논공행상이 불충분하여 이에 불만을 품은 무사들이 막부의 영향권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고다이고천황은 이를 천황통치체제 부활의 기회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측근의 정신인 공가집단 및 막부에 불만을 품은 무사집단과 결탁하여 1333년에 鎌倉幕府를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새로이 수립된 천황정권은 논공행상이나 제반정책의 실천과정에 있어서 측근인 공가집단에 비하여 막부를 무너뜨리는 데에 공로가 많았던 무사집단을 박대하였기 때문에 무사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그리하여 신정에 실망한 무사들은 이윽고 무가정치에로의 복귀를 희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동지방의 무사 출신으로서 천황세력에 협력하여 겸창막부를 타도하는 데에 공을 세웠던 족리존씨가 1336년에 천황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무사들을 규합하여 천황 정권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後醍醐天皇은 京都를 탈출하여 吉野로 조정을 옮겼다(南朝). 천황을 축출한 足利尊氏도 京都에 또 하나의 천황을 옹립하고(北朝), 1338년에 정이대장군에 임명되어 室町幕府를 열어 무가정치를 재현시켰다.

이로부터 일본에서는 남조와 북조의 조정이 각각 그 세력권을 확장하고 무사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다툼을 벌인 결과, '남북조의 쟁란'이라는 전국적인 규모의 동란으로 확대하여 1392년에 足利義滿에 의하여 남북의 화해가 성립되기까지 약 60년간 혼란상태가 지속되었다.

남북조의 쟁란이 계속되는 동안 일본의 전국토는 황폐화하여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천황과 막부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다. 바로 이와 같은 동란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이탈한 지방 무사집단과 민중들은 왜구라는 해적집단으로 변신하여 한반도와 중국의 해안지대에 출몰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게 되었던 것이다.<sup>5)</sup>

이들은 13~16세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중국의 해안지대 연안에 출몰하여 약탈과 살육을 일삼아 한반도의 고려 및 조선, 그리고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었다. 이들 일본인 해적집단을 한반도의 고려와 조선 또는 중국에서는 왜구라 일컬었다.<sup>6)</sup>

이들은 고대의 왜구와는 달리 대규모이고 조직적이었다. 고려시대 왜구의 침입이 시작되었다는 충정왕 2년(1350) 2월에 3백여 명을 참살했다는 기록으로 왜구집단이 대규모화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왜구의 선단을 보더라도 최저 20척에서 최대 5백여 척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그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sup>7)</sup> 鄭若曾의 『日本圖纂』에 있는 왜구의 선박에 관해 살펴보면 대선은 3백명, 중선은 1~2백, 소선은 40~80명이 승선 가능하였던 것으로,<sup>8)</sup> 왜구의 선단이 대·중·소선으로 혼합편성 되었을 것으로 보더라도 최대 500여 척일 때 그 인원수는 수만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왕 5(1379)년에는 왜구의 기병 7백 명과 보병 2천여 명 등 3천명에 가까운 대부대가 진주를 침공한 예도 있었다.<sup>9)</sup>

이러한 대규모의 왜구는 일정한 조직과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平戶 중심으로 하여 활동을 벌였던 松浦黨의 활동은 유명하다.

왜구는 침구지역에서 약탈과 방화를 일삼으며 잔인한 활동을 서슴없이

5) 『왜구토벌사』, 국방군사연구소, 1993, 51-52쪽.

6) 『왜구토벌사』, 국방군사연구소, 1993, 57쪽.

7) 이영, 「고려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제17호, 103-132쪽.

8) 「왜구도권」에 명나라 군사와 전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10명 내외가 승선한 더 작은 배도 있었다(『왜구토벌사』, 국방군사연구소, 1993, 별쇄화보 「왜구도권」 참조).

9) 『왜구토벌사』, 국방군사연구소, 1993, 5쪽.

하였다. 「倭寇圖卷」에도 왜구들이 방화를 하는 장면과 이들을 피해 달아나는 명나라 양인들의 모습이 생생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왜구는 여자를 잡으면 간음하였고, 남자는 머리를 깎아 왜구처럼 만들어 칼이나 창을 주어 전투시 선봉에 서게 하였다. 또 전투에 나서기 전에는 2세 정도 되는 갓난아이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낸 뒤, 쌀을 넣어 봉합을 하고나서 이를 불에 넣어 배가 갈라지는 여부로 전투의 승패를 점치기도 하는 등 만행을 자행하였다.<sup>10)</sup>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만행을 저지르며 약탈집단으로서의 잔혹성을 보였던 왜구에 대하여 일본학계에서는 매우 관대한 태도로 연구에 임하고 있다. 일본학계의 왜구에 대한 인식은 쉽게 말하면 역할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왜구가 해양활동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산물을 교역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여 동아시아의 생산물이 서로 유통하여 역사 발전을 한단계 앞서 나가게 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왜구의 기본 성격이 약탈을 일삼는 침구집단이 아니라 무장상선단이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왜구는 기본적으로 상대지역에 상업을 요구하였지만, 상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무력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편다.

또한 이들을 海上武士團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해상무사단이란 해안과 바다를 중심으로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독자적인 단위로서 島·浦·津에서 선박과 百姓의 水軍을 동원하였고 海夫로 불리는 下人·所從의 예속적 海民을 포함하고 있어서 예속신분과 百姓, 그리고 小領主와 領主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13세기 초에 고려 해안에 출몰하여 침구를 하였다고 한다. 왜구=해상무사단이라는 주장은 왜구의 출현이 일본의 국내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3세기 초의 고려 해안에 출몰하였던 왜구=해상무사단은 일본의 「承久의 亂」에서 公家が 패배하자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西

10) 전중건부, 『왜구』, 교육사, 1982, 188쪽.

國의 무사들로서 內海의 영주와 토착세력들이었다고 한다.<sup>11)</sup>

그러나 왜구의 침구지역을 보면 해안에서 교역만을 일삼다가 귀국하는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왜구의 우두머리 가운데 한사람인 藤經光의 경우에서와 같이 고려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일정한 토지 점유를 하고자 했던 집단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왜구에 대하여 침구를 당했던 지역과 침구를 했던 지역과의 인식 차이는 매우 크지만, 침구를 당했던 한국사의 입장에서 일본의 왜구역할론을 수궁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왜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서술하기도 한다.<sup>12)</sup>

이 주장을 따르면 왜구의 잔학한 행위는 결국 조선인과 중국인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며, 일본의 책임은 없다는 식의 악역 책임전가의 논리가 된다. 그러므로 왜구의 고려 및 조선 침구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해와 한국적 정서에서의 인식이 필요하다. 더구나 왜구의 발생원인도 일본에서는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략에 대한 복수심의 발로의 하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3)</sup>

다음으로 고려말 조선초 왜구의 침구의 규모와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고려말에 왜구의 침구횟수에 대하여 살펴보자. 왜구침구횟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고려사』에 기록된 수만 하더라도 최소 300회 이상은 찾아진다.<sup>14)</sup> 이들은 대마도를 포함한 일본에서 직접 침구하였던 경

11) 김보환, 「中世 麗·日관계와 倭寇의 발생원인」, 『왜구·위사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106-108쪽.

12)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2002, 97쪽. 이재범·손승철의 「일본 역사서의 중·근세 한일관계사에 대한 왜곡 실상」, 『왜구·위사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3-5쪽.

13) 이영은 왜구의 주체가 일본이라고 하기 보다는 고려·조선인이었다고 하는 진중건부 등 일본 연구자들의 기존설에 대하여 전제부터 성립하기 힘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 연구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왜구 구성원이 고려의 화척·재인이거나 제주도인이라는 주장은 고려의 국내문제와 영토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왜구의 주체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왜구의 주체」, 『왜구·위사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196-197쪽).

14) 왜구 침구 횟수에 대하여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23년에서 1392년 고려가

우도 있지만, 일정하게 조직을 편성하여 왔다가 고려의 해안에 일정한 거점을 두고 기거하면서 인근 지역을 침구하였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sup>15)</sup>

고려말의 왜구는 이러한 형태로 40여 년간 고려의 해안에서 출몰한다. 이들의 성격을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 가운데 왜구가 대규모로 침구한 몇 사례만을 살펴보도록 하자.

1350년(충정왕 2) 2월 왜구가 고성·죽림·거제 등지에 침입해오자 합포 천호 崔禪과 도령 梁瑄 등이 이를 격파하여 3백여 명을 참살하였다고 한다. 이때부터 왜구가 대형화 되고 빈도도 급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고려사』에도 이 해부터 왜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이다. 이 해 4월에 다시 왜구 선단 1백여 척이 순천부 등에 나타났고, 5월에 다시 66척이 순천부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듬해에 8월에는 왜구 선단 130척이 자연도와 삼목도에 침입하여 가옥을 불지르는 등 1백척 이상의 왜구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공민왕(1352~1374)대가 되면 왜구는 더욱 극성한다. 이 기간 동안만 1백여 회 이상의 침구기사가 찾아진다. 침구범위도 확대되어 전국 각지에서 출몰하며 도읍인 개경 부근의 승천부·강화·교동·예성강 등지까지 빈번히 출몰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1358년 3월 11일에 400여 척의 왜구 선단이 배천 남쪽 40리의 각산수에 침입하여 고려 선박 3백여 척을 소각하였고, 1363년 4월 20일에도 213척의 선단이 교동을 침범한 사실이 있다. 1364년 3월 5일에도 2백여 척의 왜구 선단이 갈도(통영)에 정박하였고, 1374년에 4월 23일에도 350척의 왜구 선단이 합포에 오는 등 대규모 왜구가 전 해안 지역을 침구하였다.

덜말할 때까지의 왜구 침구횟수에 대하여 羅鐘宇는 519회(『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원광대학교 출판부, 1996), 田村洋幸은 409회(『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7), 田中健夫는 484회(『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961)이거나 302회(『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57)일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보환의 앞의 논문(108쪽)에서 이를 도표화하여 비교해 두었다.

15) 이영, 앞의 논문.

그리고 우왕대(1375~1389)가 되면 가장 빈번하게 고려를 침구하고 있다. 15년의 기간에 200회 정도의 왜구 침입이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년에 10여 회 침구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왜구 침구는 조선시대가 되면서 현저히 줄어든다. 1392년부터 1443년까지의 왜구 출몰 횟수는 150여회에 이른다.<sup>17)</sup> 50여 년에 150회라면 1년에 3회 정도의 침구 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왜구의 출몰이 줄어든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조선의 事大交隣책에서 찾을 수 있다. 왜구를 정착시켜 왜인화하였던 것이다.<sup>18)</sup>

### 3. 사천시의 역사와 왜구

#### (1) 사천의 역사와 방어시설

지금의 사천시는 1914년에 옛 사천군과 곤양군을 통합하여 형성된 도시이다. 사천시는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의 史勿縣이다. 혹은 浦上八國<sup>19)</sup> 가운데 하나인 史勿國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757년(경덕왕 16)에 泗水縣으로 개칭되어 고성군의 領縣이 되었다. 고려초인 940년(태조 23)에는 泗州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성종 때에 조세미를 수송하기 위한 조창의 하나인 通陽倉이 설치되었던 곳이다.<sup>20)</sup> 1018년(현종 9)에는 진주의 속현이 되었으

16) 침구횟수에 대한 근거는 논자마다 다르다. 본고에서는 전중건부(앞의 책, 201쪽)의 견해를 따랐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왜구 침구상황에 대해서는 왜구토벌사의 각 시기별 왜구 침구상황도를 참고하기 바란다(68·95·139·162쪽).

17) 전중건부, 앞의 책, 202쪽.

18) 김보환은 한반도에서의 왜구 출몰 상황을 거의 일본 국내 사정과 관련지어 파악하려고 한다(앞의 논문, 131-132). 그러나 고려와 조선의 왜구 토벌과정, 왜구 유화책 등 다양한 고려와 조선의 대왜구방책과도 관련지어 생각하여야 할 것 같다.

19) 포상팔국은 가야 주변에 있었던 나라로 가야를 공격하려다가 신라의 공격을 받았다.

나, 1172년(명종 2)에 監務를 두고 현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천현으로 개칭되면서 현감이 두어졌고, 뒤에 鎭을 두었다. 세종조에는 兵馬僉節制使라 개칭하였다가 다시 현감으로 고쳤다.<sup>21)</sup> 조선초의 군현제 개편으로 1413년(태종 13)에 사천현이 되었다. 별호는 동성(東城)이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사천의 군사적 중요성이 인정된 시기는 조선시대에 들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 고려시대에도 통양창을 두었던 것은 그만큼 이곳이 남해 해상 교통의 주요 거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사적으로도 중요시 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헌상으로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중요한 군사거점으로서의 인식은 『동국여지승람』에 權기의 기문을 인용하여 ‘최남방요해지’<sup>22)</sup>라 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다. 이를 보면 사천은 요해지로서 일찍부터 군사적으로도 중요시 되어 왔었던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까지 漕倉, 또는 鎭이 설치되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남해의 교통 및 군사 요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진주·사천·고성 등에 나뉘어 소속되어 있었으며, 특히 진의 위치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도 변천하였다. 진은 군사특수지역에 설치한 군정일치적 성격을 갖는 지방관제로서 이러한 사실은 사천이 군사와도 밀접한 지역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군정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지역이었던 사천지역에 요해지로서 방어시설이 들어선 것은 문헌상으로 볼 때는 조선시대 이후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사천의 角山에 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성의 축조시기가 조선시대 이후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각산과 관련된 내용은 『고려사』에 ‘1360년에 왜구가 각산에 침공했다’<sup>23)</sup>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앞의 내용으로

20) 통양창성(通洋倉城)은 현의 남쪽 17리에 있고 토성(土城)의 둘레가 3,086尺이며, 즉 옛 날에 조세(租稅)를 거두어들인 곳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사천현 고적).

2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사천현 건치연혁.

2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사천현 형승.

23)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 9년 하4월 병오.

이곳이 일찍부터 중요한 요충지인 것은 확인되지만 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없다. 이때의 표현이 그냥 각산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방어시설인 각산성이 축조된 시기는 조선에 들어서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성이 조선시대에 축조되었음을 다음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각산에 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는 『동국여지승람』의 徐居正의 기문이 참고된다.

남쪽으로 오면서 가는 곳마다 깨끗하게 높지 않은 곳 없네. 삼신산이 보일듯 말듯 머리 가까운 곳이라. 외딴 섬에 여기 비졌는데 심수 저물었고, 거친 성에 해지니 각산에 가을이로다. 놀랜 물결 밤에 교룡굴을 흔들고, 남은 눈 향기가 유가 물가에 풍긴다.<sup>24)</sup>

이 성의 성립배경과 규모에 대해서는 『동국여지승람』 辛碩祖의 기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사천현에 옛날에는 성이 없었다. 임술년에 나의 선정 병조참판께서 명을 받아 도체찰사가 되어서, 현 북쪽 4리쯤에 터를 살피다가 알맞은 곳을 정해서 성을 쌓았다. 현 태수 안후가 관사를 옮겨 짓기 시작하였으나 공역하는 중도에 갈려 갔다. 을축년 봄에 지금 태수 송희경이 왔다. 놀고 있는 자를 부려서 두어 달이 못 되어 완성하였다.<sup>25)</sup>

계속되는 신석조의 기문을 참고하면, 사천은 요해처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어시설이 없었던 듯하다.

내 일찍이 국승(나라역사)을 상고하니 사천은 본래 신하 사물현이었고, 또 동성이라고도 하였다. 바닷가에 위치하여서 지역이 가장 궁벽지고 또

2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사천현 궁실 객관.

2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사천현 궁실 객관.

멀다. 고을된 지는 오래이고, 또 왜국과는 요충지대에 해당하나 일찍이 성곽이 없었다. 그리하여 옛날 고려 말기에는 왜적이 침입하는 마당으로 되었던 것이다.<sup>26)</sup>

위의 내용을 보면 사천은 그 고을의 역사도 유구하고 왜국과의 요충지에 해당하지만 성곽이 없어서 고려말에 왜구의 마당이 되었을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왜구가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사천은 요충지이면서도 구태여 방어시설을 갖출 필요를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천혜의 해상요새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천이 있는 진주만을 해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지도를 거쳐 상도와 하도를 지나 갈 수밖에 없다. 이 지역들은 해양의 전초기지가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합포(마산)에서 오기 위해서는 거제도과 고성반도의 해협을 거쳐야 하고, 전라도에서 오기 위해서는 노량을 거쳐야 한다. 모두 물길이 사납고 좁은 지역이라 대선단이 오기에는 마땅한 지역이 아니다.

이처럼 문헌상으로는 방어시설 등에 관한 자료가 소략한 편이다. 그런데 현재 왜성으로 알려져 있었던 선진리토성이 이미 신라 때부터 축조되었음이 밝혀져 사천의 방어시설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고 있다. 선진리토성은 사천만의 동안 중앙의 돌출부에 위치하고 있어 사천만과 남해안을 조망하기에 유리한 지형이다. 이 일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석관묘와 주거지 및 수혈유구와 내부에서 출토된 인화문병과 퇴적층에서 출토된 비문 등을 보아 처음 축조된 시기를 9세기 초반을 전후한 시기까지로 비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 선진리토성이 고려초에 통양창이 설치됨으로써 통양창성으로 사용되었고, 조창제도가 폐지되는 조선 태종 3년까지 창성으로서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7)</sup>

2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사천현 궁실 객관.

27) 안성현, 「사천선진리토성 발굴조사개요」, 『한국중세 사천지역사학회연구』, 2005 한국중세사학회 학술발표대회, 18-19쪽.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사천 일대가 남해안의 중요한 교통상의 요지이며, 그러한 인식과 조창 등의 설치를 통하여 중요한 해상 요지로 인식되어 왔던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2) 사천과 고려말의 왜구

사천시에 왜구가 처음 등장한 것은 4세기말 무렵으로 보인다.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에는 왜구가 사천에 직접 들어왔다는 기록은 없지만, 400년에 경상도 남해안 일대를 잠시 주둔했다는 근거를 보이고 있다.<sup>28)</sup> 비문에 나오는 지명의 위치비정은 명확하지 않으나, 그 위치가 임나가라 부근인 것으로 보아 신라의 서쪽에서 전투가 발발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왜구가 신라의 국경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면 사천 일대에도 그 일부의 영향력이 미쳤을 것이다. 특히 이 왜구들은 백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 왜구들로 신라와의 국경에서 전투를 하였으므로 당시의 국경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천 일대에도 영향력을 주었을 것이다. 이후로도 왜구는 한반도를 침구하였으나, 특정하게 사천일대에서 어떠한 침구를 감행한 것 같지는 않다.<sup>29)</sup>

이후 고려 전기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進奉船에 의한 통교가 이루어진 시

28) (왕은)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하게 하였다. 남거성으로부터 신라성에 이르기 까지 왜가 그 안에 가득했다. 관군이 이르자 왜구가 물러나고 ... 뒤를 급히 추격하여 ...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는데 성이 곧 귀복하였고, 신라인 수병을 배치하였다. 신라 염성을 공격하자 왜구는 크게 무너졌다. ... 10분의 9가 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므로 신라인 수병을 두었다. 신라성 ... 나머지 왜는 무너져 도망하였고, ?성을 빼앗아 신라인 수병을 두었다(「광개토왕릉비문」 2면 8행 9자-3면 3행 6자, 영락 10년 경자).

29) 731년 4월 왜선 3백척이 바다를 건너 동변을 습격하였다가 신라군에 의하여 격퇴된 사실이 있다. 이때의 침구가 동변이므로, 남변의 사천에 이른 것 같지는 않다(『삼국사기』 권 8, 성덕왕 30년 4월). 그 뒤로 장보고 시절에는 한때 신라의 세력이 일본을 위협하기도 하였으므로 왜구가 침구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이 무렵은 신라의 선단이 일본근해에 출몰하여 위협을 주는 해적처럼 이해되기도 했던 것이다.

기라서 13세기가 될 때까지는 이렇다하게 침구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350년(충정왕 2년)의 대규모 왜구 침구<sup>30)</sup>가 시작되면서 사천도 편안할 수만은 없었다. 사천은 갑작스런 대규모 왜구의 침구에 상당히 시달렸던 것으로 여겨진다.<sup>31)</sup> 이 해 2월에 왜가 고성·죽림·거제·합포에 침구하였다.<sup>32)</sup> 이때에는 고려의 천호 최선과 도령 양관 등이 싸워 왜구 300여 명을 죽였다.<sup>33)</sup> 이때 죽은 왜구가 300여 명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규모의 왜구가 침구하였다는 의미이다. 사천에 직접적인 침구를 하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고성 등지는 사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사천지역의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만은 할 수 없다. 비록 이들은 사천과 가까운 지역인 고성 등지에서 격파되었지만, 사천 일대에도 일정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1350년의 왜구는 이때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이 해 4월에는 100여 척의 왜구의 선단이 순천부를 침구하고 섬진강 상류인 남원·구례·영광·장흥 등지의 조운선을 노략질 하였다. 조운선 탈취를 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이때의 왜구들의 침구 목적은 식량 탈취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6월 정유에 왜선 20척이 합포에 침구하여 그 영을 불사르고 고성·회원(창원) 등 여러 군에 미쳤다.<sup>35)</sup> 합포는 지금의 마산으로 왜구 침구시기 뿐만 아니라 고려와 조선 전 시기를 통하여 수군의 요충지였다. 왜구 침구기에도 이곳에 수군의 켠이 있었다.

왜구는 11월에는 남해현에 침구하였다.<sup>36)</sup> 남해현은 사천의 서남쪽에 마

30) 이 해가 경인년이므로 '경인의 왜구'라고도 부른다.

31) 고려후기의 왜구에 관해서는 「고려후기 왜구의 성격에 대하여」(이재범, 『사림』 19, 2003) 참조.

32) 합포는 지금의 마산으로 이에 관한 연구는 「고려말의 왜구와 마산」(이영, 『한국중세사연구』 제17호, 2004)가 있다.

33) 『고려사』 권37, 세가 충정왕 2년 2월.

34) 『고려사』 권37, 세가 충정왕 2년 4월.

35) 『고려사』 권37, 세가 충정왕 2년 6월 정유.

36) 『고려사』 권38, 세가 공민왕 즉위년 11월.

주 보이는 지역으로 사천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왜구의 침구에 고려의 반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민왕 원년(1351) 추칠월 정해에 합포만호가 왜구를 포로로 잡아 올리기도 하였고,<sup>37)</sup> 공민왕 2년(1352) 9월 계유에도 경상도 합포만호가 왜의 포로 8인을 바쳤다.<sup>38)</sup> 그러나 예고없이 간헐적으로 기습적인 침구를 하는 왜구에게 당한 크고 작은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한편 사천과 그 인근 지역의 왜구 침구에 관한 기사는 1359년 4월에 왜구가 角山에 침공했다<sup>39)</sup>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 기록상으로는 1352년부터 1359년까지 이 일대에 왜구의 침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왜구는 이 시기에 기습을 부려 전라도 해안은 물론 개경 근처에까지 침구하여 개경은 이미 계엄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던 왜구가 이 해에 사천과 그 일대에서 준동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때 왜구가 갑자기 사천 지역을 침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물론 이때의 각산이 사천의 각산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듬해인 1360년에는 왜가 사천과 가까운 남해현을 불태웠고,<sup>40)</sup> 왜구가 진주와 악양현(하동)을 불지르기도 하였

37) 『고려사』 권38, 세가 공민왕 원년 추7월 정해.

38) 『고려사』 권38, 세가 공민왕 2년 9월 계유.

39)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 9년 하4월 병오. 일부에서는 이곳에 성이 백제 때부터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삼천포항을 서남 방향으로 병풍처럼 둘러 쳐 있는 산이 각산인데 바다를 한 눈에 굽어 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 이 산의 8부 능선에 길이 242m를 둘로 쌓은 석성(石城)이 남아 있으니 이곳이 각산산성이다. 성의 남쪽 성문은 원형대로 남아 있으니 성벽의 대부분이 허물어져 있어 복원을 하였다. 이 성은 백제의 제30대 무왕 6년(A.D 605년)에 축성한 것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다. 백제는 전성기에 영토를 이 지방까지 확장한 적이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진주목본백제거열성(晋州牧本百濟居烈城)…」, 즉 「진주는 본래 백제의 거열성이었다 …」 하는 대목을 보면 진주가 백제의 영토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나온다. 가야제국이 흩어져 살다가 가락국이 신라에 의하여 병합될 무렵에 진주지방이 고령, 가야는 백제가 공취하여 거열성을 두었다. 하고 무왕 6년 2월에 각산성을 쌓았다고 하였는데 이 성은 진주의 남쪽 76리에 있다고 하였으니 오늘의 각산산성이다. 이 산성은 그 뒤 고려시대에는 삼별초난(三別抄亂)을 토평(討平)하는데도 활용되었으며, 왜구의 침범에는 각산리의 주민들이 이 산성에 의지해서 대응했던 곳이다(사천시청 홈페이지).

던<sup>41)</sup> 것을 보면 이때의 각산은 사천 각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려는 이 무렵 왜구에만 시달렸던 것이 아니다. 고려는 북으로부터는 홍건적의 침입을 당해 공민왕은 북주로 피난을 가기도 하였다. 이를 북의 홍건적과 남의 왜구라고 하여 '北虜南倭'로 부르기도 한다. 어쨌든 1360년에 공민왕은 개경을 점령하였던 홍건적이 퇴각함으로써 1360년 2월 신축에 피난지인 福州(지금의 안동)를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sup>42)</sup>

이러한 가운데 1360년 3월에는 왜선 200척이 갈도(순천)에 정박하였다.<sup>43)</sup> 며칠후 이들은 섬진강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 하동에 침구하였다.<sup>44)</sup> 이 왜구들 가운데 일부는 고성·사주(사천) 일대를 침구하였다.<sup>45)</sup> 이때 사천 일대를 침구한 왜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이들이 이용한 선박의 수효가 200척이라고 한 것을 보면 대규모의 편제된 정규군의 공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왜구들은 통상적인 방법처럼 사람을 괴롭히고 물건을 약탈하였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5월에 慶尙道都巡問使 金續命이 왜 3,000명을 진해현에서 쳐 이를 크게 부수었다는 첩보를 올렸다.<sup>46)</sup> 이 왜구가 3월에 갈도에 정박했던 무리 가운데 일부였음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한편 고려에서도 점차 대외책을 강구하여 가고 있었다. 대외책 가운데 하나가 왜구 가운데 고려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거제 등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구는 이를 어기고 1368년 영주(천안)·온수·예산·면주의 조운선을 노략질하였다.<sup>47)</sup> 이렇게 하여

40) 『고려사』 권39, 공민왕 10년 3월 정사.

41) 『고려사』 권40, 공민왕 11년 2월 정유.

42) 『고려사』 권40, 공민왕 11년 2월 정유.

43) 『고려사』 권40, 공민왕 13년 3월 기사.

44) 『고려사』 권40, 공민왕 13년 3월 임신.

45) 『고려사』 권40, 공민왕 13년 3월 을해.

46) 『고려사』 권40, 공민왕 13년 5월.

47) 『고려사』 권41, 공민왕 18년 11월 무오.

다시 왜구가 준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왜구의 준동이 있다고 하여도 사천 일대에 직접적인 침구를 가해 온 경우는 많지 않았다. 1373년 왜구의 침구가 있었지만, 구산현(창원) 일대를 약탈하였을 뿐 사천에 직접 침구한 예는 찾아지지 않는다. 이 왜구들은 경상도도순문사 洪사우에 의해 수백명이 죽고, 많은 무기들을 버리고 물러갔다.<sup>48)</sup> 그러나 여기서 물러난 왜구들은 3월에는 하동군을 침구하였다.<sup>49)</sup> 이처럼 왜구들의 움직임은 출몰을 예측할 수 없어 고려의 피해는 더욱 커져갔다.

더욱이 1374년 4월에는 왜선 350척이 경상도 합포에 침구하여 군영의 병선을 소각하였다. 이때 죽은 병사의 수가 5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조정은 그 책임을 물어 조림을 보내어 도순문사 金광을 주살하고 사지를 찢어 여러 도에 돌렸지만,<sup>50)</sup> 왜구의 기습을 쉽게 가라앉히기는 어려웠다.

이들은 계속하여 약탈을 일삼다가 1376년 11월에 명진현과 함안·동래·양주·언양·기장·고성·영선(진주) 등 경상도 동남해안을 불사르고 약탈하였고,<sup>51)</sup> 진주 반성현과 또 울주·회원(창원)·의창 등의 현에 침구하여 불사르고 노략질하여 거의 남김이 없었다.<sup>52)</sup> 경상도 남해안에 대하여 거의 무차별적인 침구를 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12월이 되자 왜구가 합포영을 불지르고, 다시 양주·울주·의창·회원·함안·진해·고성·반성·동평·동래·기장 등의 현을 도륙하고 불질렀다.<sup>53)</sup> 왜구에 의하여 합포영이 소실되고 이 일대가 분탕질을 당한 것은 고려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이었다. 더욱이 합포영은 이 일대의 중요한 지휘소 역할을 하던 곳이었는데, 왜구에 의하여 탈취되었다면 이곳은

48) 『고려사』 권44, 공민왕 22년 2월 기해.

49) 『고려사』 권44, 공민왕 22년 3월 경술.

50) 『고려사』 권44, 공민왕 23년 하4월 임자.

51) 『고려사』 권133, 반역 신우열전 신우2년 11월 신사.

52) 『고려사』 권133, 반역 신우열전 신우2년 11월 병술.

53) 『고려사』 권133, 반역 신우열전 신우2년 12월.

왜구의 본거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시기 사천의 피해도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심각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377년에도 왜구 기세는 시들어지지 않았다. 정월에 왜구가 회원(창원) 창을 도둑질하였고,<sup>54)</sup> 9월에는 악양현을 침구하였다.<sup>55)</sup> 11월에도 왜선 130척이 김해·의창에 침구하였다. 이를 맞아 都巡問使 裴克廉이 싸웠으나 패전하였다.<sup>56)</sup> 그러나 이듬해에도 왜구의 침구는 끊이지 않았다. 동 4년 8월 경상도 원수 배극렴이 왜를 육지도에서 쳐서 50명을 죽였다.<sup>57)</sup>

1378년에도 왜구는 극성했다. 11월에는 일본의 영주가 왜구를 근절하는데 지원했던 神弘이 고성군 적전포에서 패전하고, 귀국하는 사례도 생겼다.<sup>58)</sup> 12월에 왜구가 하동·진주에 침구하자 도순문사 배극렴이 병마사 유익환으로 더불어 협공하여 19명을 죽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추격전을 전개하여 사주(사천)에서 2명을 참하였다.<sup>59)</sup> 사천에서의 전투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전투의 성격이 고려군의 전과확대 차원에서의 왜구 섬멸전 성격이다. 사천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1379년 9월에는 왜구의 극성으로 말미암아 海印寺에 소장한 歷代實錄 및 經史 諸書を 선산 득익사에 이치하였다. 그리고 李乙珍으로 충주단양도병마사를 삼고 張伯淵으로 청주병마사를 삼아 모든 장졸을 분령케 하여 왜구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구는 사천을 침구하였다. 이때에도 사천과 함께 산음·진주·함양 등지를 침구하였다. 조정에서는 사자를 서해·양광도 등에 보내 수군을 뽑아 왜구에 대비케 하였다.<sup>60)</sup> 이 때에도 왜구는 사

54) 『고려사』 권133, 반역 신우열전 신우3년 정월.

55) 원수 이림이 쳐서 2명을 노획하였다(『고려사』 권133, 반역 신우열전 신우3년 9월).

56) 『고려사』 권133, 반역 신우열전 신우3년 11월.

57) 『고려사』 권133, 반역 신우열전 신우4년 8월.

58) 『고려사』 권133, 반역 신우열전 신우4년 11월.

59) 『고려사』 권133, 반역 신우열전 신우4년 12월.

60) 『고려사』 권134, 반역 신우열전 신우5년 9월. 단계(단성) 거창 야로(합천) 등 현에 침구하여 사수(삼가)에 이르거늘 도순문사 김광부가 더불어 싸우다가 패하여 죽었다.

천을 집중 공략한 것이 아니다. 왜구는 주변의 여러 지역을 동시에 공략하면서 사천도 그 가운데 한 지역으로 선정하였던 것이다.

한편 1380년 이후가 되면 고려는 한반도에 침투한 왜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최무선의 화약 제조는 왜구침구에 대한 대응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됨을 의미한다. 화약을 처음 사용한 鎭浦戰鬪에서 섬멸적인 타격을 입은 왜구는 다시 荒山戰鬪에서 대패를 하여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리고 사기에도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은 왜구들은 침구 규모와 침구지역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고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왜구의 침구는 강한 저항에 부닥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1381년 7월에 왜구의 전선 50척이 김해부에 나타났으나, 원수 南秩이 이를 물리쳤다. 그리고 고성현에서도 왜구 8명을 참살하였다. 사천 일대에까지 침구한 왜구를 격퇴한 것이다.<sup>61)</sup>

그리고 1383년 5월에도 120척의 대선단을 형성한 왜구가 남해현에 침구하였다. 이때에 47척의 열세한 선단을 가졌던 고려의 鄭地가 탁월한 전략을 구사하여 격퇴하였다. 이른바 觀音浦戰鬪라고 하는 이 일전으로 고려는 왜구토벌사에서 새로운 전기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전투에 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전투상황이 전하고 있다.

당시 120척의 왜구 선단이 이르자 현지인들은 크게 동요하였다. 그 지역 방어를 담당했던 함포원수 유만수는 자력으로 맞서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목포에 주둔하고 있었던 정지에게 지원을 청하였다. 지원요청을 받은 정지로서도 휘하 선단은 47척 밖에 없었으나 서둘러 남해현을 향해 나아갔다. 정지는 120대 47의 열세임을 알면서도 남해현의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았기에 부하를 독려해 가며 주야로 항해를 하였다. 그때 왜구는 남해현 북쪽 관음포에 선단을 배치하고 고려군과의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고려군이 도착하자 자신들의 군대보다 약하다는 판단아래 정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왜구는 숫적 우세를 이용하기 위하여 포위전을 구사했다. 그런

61) 『고려사』 권134, 반역 신우열전 신우 7년 7월.

데 바로 비가 내리고 파도가 거세져 갔다. 정지는 이를 이용하여 왜구의 정면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박두양으로 향진하였다. 그러나 여기도 140명씩을 승선시킨 왜구의 대선 20척이 전투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지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선봉에 나서 왜구에 대하여 정면 공격을 펼쳤다. 왜구도 고려군을 향하여 향진해 왔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고려군에서는 화포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궁시도 퍼부었다. 고려군의 화포가 울릴 때마다 왜구의 전함이 파괴되고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진포전투 이래로 고려군이 화약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왜구들의 피해가 컸다. 정지가 지휘했던 고려군은 왜구전선 20척 가운데 17척을 소각 침몰시키고 승선인원 2천 4백여 명을 섬멸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고려군도 병마사 윤송이 유시에 맞아 전사하였고, 수십명의 희생이 따랐다.<sup>62)</sup>

이 관음포전투의 승리<sup>63)</sup>로 왜구의 대규모 침구는 일시 좌절되었다. 그리고 이 전투 이후로 고려에 대한 왜구의 인식이 달라졌다. 1388년에도 왜구 선단 150척이 나타났으나 전투지역을 바꾸어 동해안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단 왜구의 활동은 주춤하게 되었다. 만약 관음포전투에서 왜구를 막지 못하였다면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천일대의 피해는 엄청났을 것이다.

### (3) 사천과 조선전기의 왜구

조선전기에 들어서면 왜구의 침구는 감소하고 있다. 감소의 원인은 여럿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선의 대외관계의 원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조선 대외관계의 기본은 사대교린으로 큰 나라인 중국에 사대하고 인접국들과는 평화로운 통교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선

62) 『고려사』 권113, 정지열전; 『고려사절요』 권32, 신우 9년 5월.

63) 관음포전투에 대하여 정이오는 '망운산에서 뭇배바람 바라보니, 동서로 오가는 배가 통행한다. 영웅의 당시 일을 묻지 마소, 지금도 사람들이 첫째 공이라 기뻐 말한다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남해현 산천 관음포)라는 시를 남기고 있다.

은 왜구에 대하여 조선에서 정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따라서 침략집단의 왜구가 평화로운 왜인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왜구의 속성이 바뀐 것이 아니라 명칭상으로만의 변화였고, 이들은 언제라도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이 되지 않거나 조선의 정책이 바뀌면 돌변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조선전기 왜구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륙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해안가에 출몰한다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경상도의 해안은 다른 지역보다 빈번하게 침구를 당하였다. 1394년(태조 3) 2월 13일, 경상도 일대에 왜구의 대규모 공격이 실시되어 곤란을 겪었다.<sup>64)</sup> 경상도지역에서는 경상도수군첨절제사 安處善이 직접 출동하여 왜적 12명을 죽였고, 경상도 수군만호 車俊도 2월 20일에 왜선 1척을 포획하고 13명을 죽인 뒤 2월 26일에도 왜선 2척을 포획하였다.<sup>65)</sup> 3월 9일 경상도수군만호 李之帶도 왜선 1척을 포획하여 왜구들을 격퇴하였다.<sup>66)</sup>

1396년 8월에는 120척의 대규모 선단의 왜구가 경상도를 침구하였다. 이들은 동래·기장·동평 등지를 공격하여 성들을 함락하고, 이 일대를 거점으로 약탈을 하였다. 8월 9일에는 왜구가 병선 16척을 탈취하였고, 조선도에 대응하는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sup>67)</sup>

더 나아가 12월 3일에는 대마도와 일기도를 정벌할 계획을 세웠고, 더욱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sup>68)</sup> 그러자 12월 9일에 축산도에 정박하고 있던 60여 척의 왜구가 투항의사를 보내왔다. 마침내 이 계획은 취소되었고, 왜구들의 침구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왜구는 명나라에도 출몰하여 동아시아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더욱이 이들은 명나라를 침구하고 약탈물을 가지고 귀향하는 길에

64) 『태조실록』 권5, 3년 정월 계미.

65) 『태조실록』 권5, 3년 2월 경인, 병신.

66) 『태조실록』 권5, 3월 무신.

67) 『태조실록』 권10, 5년 8월 갑오 정유 계묘.

68) 『태조실록』 권10, 5년 12월 정해.

조선에 정박하거나, 해안의 마을들을 침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사천지역에는 1401년 11월 1일,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고성현 일대에 왜구가 나타나 인근 고을들을 약탈하고 사라졌다.<sup>69)</sup> 1405년 1월 25일에는 경상도 내이포를 침구하였다가 조선군의 선전으로 물러간 적이 있다.<sup>70)</sup> 그리고 사천지역에는 물론 1409년부터 1418년까지의 왜구 침구는 10회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하여 왜구가 스스로 평화로운 이웃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조선에서의 交隣政策과 강경책을 효율적으로 채택한 결과였으며, 왜구는 언제든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약탈자로 바뀔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사천·고성 등지에 왜인의 흉리선이나 기왜의 배가 끊임없이 왕래하여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 부심하였고,<sup>71)</sup> 특히 삼천진의 경우에는 왜구가 침입하는 길목으로 남해의 미조항, 거제의 가배량과 더불어 요해지중의 요해지로 꼽히기도 하였다.<sup>72)</sup>

한편 왜구의 속성이 평화로운 왜인에서 약탈자 왜구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바로 1419년에 발생하였다. 비인현 도두음곶과 해주 연평곶 사건이 그것이다. 이 해 5월 5일 새벽에 식량조달 목적으로 중국 절강성으로 가던 왜구들이 갑자기 비인현 도두음곶에 침입하여 준비한 양식을 요구하였다.<sup>73)</sup> 조선에서 이를 거절하자 해안에 상륙한 왜구는 약탈을 심하게 하고 충청도좌도도만호 김성길과 그의 아들 김윤 및 군사 300여 명을 죽이고, 병선 7척을 소각하고 물러갔다. 그리고 5월 13일 이들은 다시 해주 연평곶에 나타나 쌀 45섬과 술 10병을 탈취한 뒤 사라졌다.<sup>74)</sup>

69) 『정종실록』 권2, 원년 11월 을유.

70) 『태종실록』 권11, 6년 1월 병진.

71) 『태종실록』 권22, 11년 7월 갑술; 『세종실록』 권76, 19년 3월 신묘.

72) 『성종실록』 권197, 17년 11월 계해 경상도관찰사 손순효 상서; 『성종실록』 권277, 24년 5월 을유.

73) 『세종실록』 권4, 원년 5월 신해.

74) 이때의 왜구들은 '우리들은 조선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 주옥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러한 왜구의 속성에 응징하기 위하여 조선은 1419년 6월 17일 마침내 대마도 정벌을 단행하였고, 성공적으로 원정을 수행하고 귀환하였다. 그러나 왜구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자 재정벌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금주위를 침범하던 왜구가 명에게 격파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취소되었다. 이 재원정 군대는 구량량(곤양 남쪽 20지 지점)에 집결해 있다가 해산되고 요해처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단절되었던 관계는 대마도주가 조선의 신하가 되겠다는 맹서를 하고, 조선에서는 이들에게 1426년까지 부산포, 내이포, 염포의 3포를 개항해 줌으로써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왜구가 너무 자주 드나들자 세건선은 1년에 50척, 세사미는 50척으로 제한한다는 癸亥約條를 체결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리하여 한동안 왜구는 잠잠했다. 그러나 왜인들의 속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가 조선전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 때 발생한 왜변들을 보면 왜인들의 속성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 李從茂의 대마도 정벌 이후 삼포에서 거주하던 왜인들은 조선의 통제가 심해지자 변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三浦倭亂<sup>75)</sup>이다. 왜인에서 왜구로 하루아침에 돌변하였던 것이다. 조선군은 삼포왜란을 수습하기는 했지만 왜구에 의하여 입은 피해는 적지 않았다. 결국 이 왜란을 계기로 조일관계는 단절된다. 그리고 1512년 일본막부 사신들이 삼포왜란의 주모자의 목을 베어옴으로써 임신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관계는 부활하였지만, 조약의 여건은 왜인들의 약탈과 해적행위를 우려한 단속 및 통제책이었다.<sup>76)</sup> 그럼에도 비록 소규모 출몰이긴 하였지만, 제주도과 내륙을 다니는 운송선들을 공격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

단지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 이곳에 이르케 되었으니, 양식만 준다면 곧 물러나겠다. 전일 도두읍곳에서도 우리는 싸우려 했던 것이 아닌데 너희가 싸움을 걸어 할 수 없이 응징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여 자신들이 도두읍곳 만행의 실체임을 밝히고, 그렇게 된 결과를 조선에 떠넘기고 있다(『세종실록』 권사, 원년 5월 정사).

75) 이현중, 「삼포왜란 원인고」, 『해원황의돈 선생고회기념사학논총』, 1960.

이재범, 「삼포왜란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 1996.

76) 조약의 기본 내용은 왜인들의 삼포거주를 금지하고 세건선 수와 그들에게 주는 쌀과 콩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540년대가 되자 왜인들은 다시 壬申約條를 위반하면서 조선의 해안에서 준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조정에서는 1541년 11월 대마도 영주에게 내이포에 와 있는 왜인들에 대한 단속을 엄격히 할 것을 추궁하는 동시에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처형하겠다는 것을 경고하는 등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1543년에는 그들의 주요한 기항지, 은거지로 되어 온 가덕도에 진을 설치하여 방어를 주둔시켰다.

그러나 왜인들은 이러한 조선의 정당한 요구에 불만을 품고 오히려 세견선 수의 증가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함에 따라 왜인들은 다시 무력도발을 자행하게 되었다.

이때 주력이 된 것은 대마도의 왜인들이었다. 이들은 20여척의 선단을 구성하여 1544년 4월 12일 새벽에 고성군 앞바다에 나타났다. 이들은 사랑동쪽 어귀로 침입하였다. 2백여 명의 왜구들은 동쪽 강 어구에 상륙하여 방비가 허술한 사랑진성의 후사면으로부터 성 주위를 포위하였다.

갑옷과 궁시로 무장한 왜구들은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공성기구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단순한 약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을 공격하여 점령할 목적으로 편성된 조직적인 부대였다. 따라서 공성계획 등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 침입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사랑진성의 방어병력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인접한 진포도 수십리 거리에 위치하였으므로 지원조차 기대하기 어려웠다. 왜구로 변한 왜인들은 남쪽 용성을 파괴하고 성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려 하였다. 사랑진의 만호 柳澤에 의해 저지되었다. 유택은 포와 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왜구의 공격을 막았다. 마침내 왜구들은 성을 점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오경에 퇴각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왜구 20여 명을 사살한 반면, 조선군은 1명이 전하하고 8~9명이 부상당하였다.<sup>77)</sup>

이 사랑왜변으로 말미암아 조선에서는 왜인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

77) 『중종실록』 권102, 39년 4월 을유.

였다. 그리하여 1544년 5월 대마도와의 관계를 다시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통고하고, 내이포에 거주하는 왜인들을 돌려보내고 그 뒤로도 왜인들의 조선 거주를 엄격히 단속하였다.

조선의 단호한 조치에 대하여 대마도주는 일본 막부의 사신을 통하여 사랑왜변에 대하여 사죄하였다. 그리고 조선과의 통교를 요청하여 왔다. 그러나 처음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조선 조정에서는 불응하였다. 그렇지만 대마도주는 계속하여 통교를 간청하였다. 마침내 1547년 2월, 조선 조정의 허락으로 丁未約條가 체결되었다. 그리하여 조선과 대마도의 통교가 재개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정미약조로 인하여 왜인통제는 더 한층 강화되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조선에 거주하는 왜인들의 행동반경을 왜관 안으로 국한시켰다. 그리고 왜인들을 철저히 조선 지방관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였다. 왜인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마도주와 그 밖의 여러 일본 영주들이 수차례에 걸쳐 정미조약의 수정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사랑왜변과 정미약조로 왜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한동안 왜구의 침구도 잠잠해졌다. 그러나 16세기 후반부터 왜구들은 명나라 해안을 횡행하였는데, 그 일부가 명나라를 침구하고 돌아오던 중 조선을 침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555년 5월 11일에 발발한 乙卯倭變이었다.<sup>78)</sup> 이때 왜구의 규모는 70여척 정도였다. 왜구들은 전라도 영암 일대에 출몰하여 향교를 점령하는 등 많은 피해를 끼쳤다. 그러나 조선군의 공격으로 15일여 만에 평정되었다.<sup>79)</sup> 그러나 이들은 다시 6월 27일에 제주도에 나타났다. 이때의 규모가 1천여 명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왜구들은 크고 작은 침구를 자행하면서 한반도의 해안을 어지럽혔다. 따라서 사천일대의 해

78) 『명종실록』 권18, 10년 5월.

79) 정영석, 『조선전기 호남의 왜변에 대하여 : 을묘왜변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연구』 1-1, 1960.

안도 일정하게 왜구의 침구에 대하여 노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왜구는 임진왜란이 끝나 조일관계가 일본의 쇄국정책이 실시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 4. 결 론

고려말에서 조선전기까지 사천 지역에 침구한 왜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왜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다. 왜구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끊임없이 침구행위를 하는 일본에 대한 총칭이었다. 비록 본고에서는 조선 전기까지만 살펴보았지만, 그 이후로도 왜구는 존재하고 있다. 평화로운 일본에서 침략하는 일본으로 바뀔 때는 언제나 왜구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속성의 왜구가 고대에서부터 조선 전기까지 사천지역에 특별히 집중되었던 사실은 찾아지지 않는다. 지리적 특성상 일본과 가깝고 해안지대에 연하고 있기 때문에 왜구의 침입이 잦고 때로 근거지로 사용되었을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그러한 내용은 문헌상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천 지역은 인접한 합포(마산)에 비하여 왜구로부터의 피해가 적었던 것 같다. 그것은 행정적인 면에서 합포가 중심지였으므로 선제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 뒤 이곳을 거점으로 주변을 약탈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천의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천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지도, 상도, 하도 등을 제압하여야 했다. 그런 다음 남해를 제압하지 않고서는 사천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사천은 자연스럽게 왜구로부터의 첫 번째 공격대상에서 제외되었

던 것 같다. 기록상으로도 사천만이 공략 당한 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체로 거제, 고성, 합포 등 주변 지역과 함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천에서 당한 피해나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왜구의 피해를 당했을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았던 지역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따름이다. 왜구 침구시에 커다란 전투는 사천의 주변에서만 발생했던 사실로 볼 때 그러한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관음포전투는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6. 2. 2, 심사완료일 : 2006. 3. 9)

주제어 : 왜구, 사천, 관음포전투, 삼포왜란, 을묘왜변

K C I

<ABSTRACT>

*Wako*[倭寇] and *Sacheon* at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Dynasty

Lee, Jae-bum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ituation and importance of military defense facilities in *Sacheon* area, *Gyeongnam* Province, and punitive measures at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Dynasty. Other point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about the activities of Japanese invaded *Sacheon* in early *Joseon* Dynasty and to reassess the *Sampo* and *Eulmyo* Japanese Invasions in detail.

Having invaded into the Korean peninsula from primitive time, *Wako* mainly composed of Japanese expanded into a large scale group such as simultaneous attack with a fleet of 500 vessels.

A marine stronghold, and main key point, *Sacheon* has a site position vulnerable to Japanese private raiders' attack. However, there was no case that at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Dynasty, *Wako*'s attack was concentrated. The reason was that the neighboring area, *Happo*(*Masan*) was a military and administrative center, so subject to preemptive attack, and *Sacheon* subject to subsidiary attack.

Also it was also understood to be due to natural geographic factor that attacking *Sacheon* needs to conquer *Yogjido*, *Sangdo*, *Hado* and the South sea in advance.

Literary records showed that *Sacheon* was never subject to independent attack, but same attack along with adjacent areas like *Geoje*, *Goseong* and

*Happo.*

The reason why *Sacheon* was relatively little damaged by *Wako* was found to have been derived from military, administrative, natural and geographical factor.

Key Words : *Wako*, *Sacheon*, The Battle of *Gwaneumpo*, *Sampo* Japanese Invasion, *Eulmyo* Japanese Invasion

K C I